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0.1)

1. 강제징용 배상법안 관련

□ [동향]

-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9월 29일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기금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¹⁾
- o 동 법안은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o 이 기금법에는 출연금을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2+2의 형태로 각출하고, 기금의 관리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일본 측이 기금에 출자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해결책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²⁾
-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한일 기업만이 출자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어서 이번에 야당이 제출하는 법안이 여당 측의 지지를 얻어 가결될 공산은 적다고 논평³⁾

2. 일본산 공기압 밸브의 WTO 상소심 최종 확정 관련

□ [일본 언론 동향]

1) 「韓日 정부·기업이 징용 위자료 지급… 한국 야당이 먼저 법안 추진」 『조선일보』 (2019. 9. 30).
2) 「元徴用工への賠償法案提出 韓国最大野党」 『静岡新聞』 (2019. 10. 1). 「韓国：徴用工基金へ法案、韓国議員提出「日本も出資を」」 『毎日新聞』 (2019. 10. 1).
3) 「徴用工基金法案、韓国野党が提出」 『産経新聞』 (2019. 10. 1)

- 일본 언론들은 WTO의 분쟁처리기관(DSB)이 9월 30일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한국의 조치가 WTO의 협정 위반이라는 최종 판결을 채택했으며, 일본의 승소가 확정되었다고 보도⁴⁾
- o 한편 한국 언론은 “WTO가 한국의 조치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로서 한국에 판정승을 내린 상소 기구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고 보도함.⁵⁾
-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향후 한국 정부에게 관세 부과 조치의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한국이 응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전망
- 또한 일본 언론은 한국 측이 “한국이 승소” 했다고 하면서, 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한편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⁶⁾

3.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WTO 제소 관련

□ [일본 언론 동향]⁷⁾

- 일본의 한 언론은 한국 정부가 9월 18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도

4. 한일 양국 상공회의소의 대화 재개 관련

□ [일본 언론 동향]

- 일본상공회의소의 미무라 회장은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문

4) 「日本の勝訴確定、WTO、韓国のバルブ関税で。」 『日本経済新聞』(2019. 10. 1).

5) 「WTO, 일본산 공기압 밸브 '한국 판정승' 최종 확정(종합)」 『연합뉴스』(2019. 10. 1)

6) 「バルブ課税 WTO、日本勝訴確定 韓国認めず長期化か」 『静岡新聞』(2019. 10. 1)

7) 「日本製バルブへの高関税 WTOが韓国に是正求める判断 採択」 『NHK NEWS』(2019. 10. 1) 및 각주 6과 동일 출처.

제를 계기로 단절된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교류를 재개할 의향임을 표명⁸⁾

- 2018년 11월 양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담이 중단되었으나, 미무라 회장은 “양국 경제계 모두 정치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각국 정부에게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다” 라고 지적하였으며, 교류가 재개된다면 2020년 봄이 될 것이라고 전망

5.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입장 관련

□ [일본 언론 동향]⁹⁾

-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0월말 태국에서 개최되는 ASEAN정상 회의에 참석할 때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연기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남.
-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이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한 대화 조건이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회담을 연기할 방침이라고 보도
- 한편 일본 언론은 향후 12월 하순으로 예정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정상 간 개별 회담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한일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

8) 「日商、対韓交流を再開、会頭「来春にも」。」 『日本経済新聞』(2019. 10. 1).

9) 「日韓首脳会談 見送る方向 月末のASEAN 政府「条件整わず」」 『静岡新聞』(2019. 10. 1).